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종교의 폐해(弊害)

겠다는 순간 모든 죄가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들이 힘들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늘도 길거리에는 무지한 기독교인들이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란 현수막을 쳐 놓고 소음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세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은 성지 회복이란 명분으로 일명 십자군 전쟁을 벌여 많은 인명의 피해를 주었지만, 승리하지 못했으며 기독교의 부패에서 비롯된 면죄부는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으며 종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낙담을 미끼로 인간을 종교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전도해 천당과 지옥의 내세를 무조건 믿고 따르게 한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을 꺼린다.

조직과 경전 그리고 통일된 의식이란 구조의 종교가 가지는 폐해를 살펴보자. 먼저 종교 조직은 특정 지도자들의 권력이 되고, 이 권력은 정치권력과 야합해 몇몇 지도자들의 종교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 거대한 공룡처럼 비대해진 한국의 개신교는 국교나 다름없는 특권을 누리며 정치권력도 움직인다. 또 조직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타 종교를 폄하하고 공격해 종교 간, 국민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불교 역시 거대한 조직과 엄청난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불경에

기록된 부처의 가르침을 어기고, 탐욕에 눈이 멀어 끊임없이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힘을 빌려 경전에 어긋나는 그 어떤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개인이 가지는 정체성과 그 나라의 역사마저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종교의 경전이란 특정 신격의 우월성을 극대화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 만든 특정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책이다. 그들은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경전을 통해 타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사상을 동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 종교는 경전을 통해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편협한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경전 안으로 구속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전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기존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구속해 종교의 노예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설책 같은 경전에 집착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종교들의 현실이다. 경전을 들먹이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살생을 부추기며 온갖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경전에 얽매어 그 종교가 추구하는 사상을 오역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뿌리에서 파생됐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개신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전의 자위적인 기록과 해석은 자기들이 받들고 있는 최고신의 명칭도 각각 다르다. 유대교는 '야훼' 가톨릭은 '아빠' 크리스천은 '여호와' 그리고 무슬림은 '알라'라고 하면서 타 종교의 최고 신들을 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했다.

우리의 민족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3대 민족종교라고 하면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민족종교가 3개나 있다는 것도 웃기는 현상이다. 이 종교들은 모두 발생 시기가 일제강점기인 19세기로 비슷하다. 그러나 다 같은 민족종교라고 하면서 모시는 절대 신명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또 서로의 신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천도교는 '한얼님' 증산교는 '상제님' 대종교는 '한배님'으로 부르고 있으니 과연 이들 종교가 민족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간다.

종교는 불확실한 내세관을 팔아 성공한 사기극을 펼치면서 발전해왔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부적으로 양심이 있으며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해 권선징악(勸善懲惡)의 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변질한 종교는 사기극을 벌여 인간을 그 안에 머물게 하고 종교의 본연의 뜻에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개념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업보를 받아야 하며,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인간들이 스스로 지은 선악에 따라 그 값음이 따라오는데 왜 종교를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기독교는 사람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다. 그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이 되

독자기고

### '보이스피싱' 예방, 기본에 충실하자

박대성  
광양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사

금융대응단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위장해 범죄에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고 과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억울하고 딱한 사연이 어디 한 둘 이겠느냐 만든 보이스피싱 피해자 만큼 억울하고 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거나 평생 모은 짚돈을 빼앗긴 노인들이 대다수 인지라 그 사연에 역장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반복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전화번호가 070(인터넷전화), 02(지역번호), 010(휴대전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까지 등장했다. 사람들이 의심 없이 전화를 받도록 번호를 위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신번호를 위장한 수법을 사용한 피해 건수가 2만2천51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1천37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사기범들의 수법이 더욱 과감해지기까지 했다.

보이스피싱을 단속하는 불법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는 것이다.

관공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됐으니 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거나, 본인 소유 통장을 사기범들이 이용하려고 있으니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아야 안전하다는 식의 전화를 받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사기 전화를 받게 되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동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전광선	편집국장 윤규진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제주담양군연합사업단